

속 기록

- 회 의 명 : 제 40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11. 28(금) 14:00 ~ 15:42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40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온라인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권용민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지금 현장에 9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2인이 참석하셔서 총 11인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유형 총괄PM 및 주관처 결정의 건,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계획 6차 변경(안), 기관 중장기 전략체계 개선(안) 등 의결안건 4건과 2025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5차 회의결과 보고 등 보고안건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10월 31일에 개최한 제407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서 1건은 원안 의결 그리고 다른 1건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53호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유형 총괄PM 및 주관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안건번호 1153호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유형(아르코 썸 페스타) 총괄PM 및 주관처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저희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2025년과 동일한 총괄PM과 주관처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송승은 총괄PM과 총괄PM에 도움을 준 ‘아이디어랩’을 사무처 주관처로 결정하고 운영예산은 5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관처 결정의 건은 크게 추진 경과와 통합유형에 대한 아르코 썸 페스타의 주요 성과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은 이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아르코 썸 페스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 배경 및 경과는 2024년 3월에서 8월까지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축제 간 연계나 통합홍보를 통한 브랜드 축제 시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도 2월에 축제조직위원회 등 사무국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와 구성이 완료되었고요.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7월과 8월 행사 완료 후에 10월부터 저희 사무처에서는 통합유형 운영에 따른 단체별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의 성과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알아본 것은 과연 이 통합유형 체제를 2026년도에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만약 바람직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르코 썸 페스타의 주요 성과입니다.

참여단체가 17개 단체였습니다. 연극 5개, 무용 6개, 음악 3개, 전통 3개였고요. 17개 단체 중에 2026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15개고요. 통합유형에 재신청한 단체는 15개 중에 14개로 재신청률은 9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체별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확실히 언론보도와 콘텐츠 누적 조회수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표로 정리된 것은 기존에 우리 지원사업을 받았던 단체들의 유형 참여 단체들, 2024년도 참여 전과 참여한 이후 2025년도 결과를 저희가 총합한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언론보도 중심, 홍보 중심의 사업 수행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는 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8페이지에 있는 아르코 썸 페스타 사무국 통합홍보 추진 실적은 저희는 크게 썸 페스타 사무국에서는 통합홍보 행사로 7월 5일과 6일에 프리뷰워크를 저희 아르코예술극장과 마로니에 공원에서 실시했었고 팝업 이벤트라고 해서 2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스토어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유동 인구 대상으로 각각 축제 행사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마케팅 부분은 언론홍보,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홍보, 바이럴홍보, 서포터즈,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했었고요. 주요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사 이후에 썸 페스타에 참여한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고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요 의견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체감은 일단

홍보 효과가 되겠습니다. 온라인·매스컴 노출 효과 극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홍보 및 관객 유도 전략 수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별 축제보다는 다소 ‘아쌘페’ 브랜드만 노출이 돼서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조심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홍보의 실효성 문제. 지역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취지인데요. 지역 맞춤형 실질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준비기간이 촉박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 미흡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은 공통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하게 된다면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사전 준비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 공유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및 통합 시너지 체고인데요. ‘아르코 씬 페스타’ 자체가 17개 축제가 참여하면서 각자 축제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함께 협력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중재자 플랫폼으로서 실질적으로 축제 간에 정보 공유나 연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부분입니다.

그 밑의 그림의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노란색 부분은 내가 왜 참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대외 인지도 향상 부분에서는 동기와 실제로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대답이 얼추 일치합니다. 다만, 관객 모객 확대나 행사 안정적 운영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옆의 도움 여부, 필요성, 만족도는 이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도움 여부나 필요성, 만족도 부분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아르코 씬 페스타’ 주관처 결정 부분과 개선 방향인데요. 보고를 드렸듯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전의 PM과 주관처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산은 5억입니다.

개선 방향 관련해서는 ‘아르코 씬 페스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주로 홍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단순 홍보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일종의 통합 기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이 기획 기능을 저희 ‘아르코 씬 페스타’ 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참여하고 이 기간에 저희 축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저희 축제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보다 더 풍성하게 콘텐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소통 활성화입니다.

협의체 운영 활성화 부분 내용이 되겠고요. 상시적 정보 공유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시작했을 때 2월에 구성되고 3월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7월에 행사를 준비할 때까지 4개월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의결을 받았고 저희가 감독이 정해지고 주관처가 정해지면 심의 동안 12월에 저희가 참여 단체들에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1월부터 바로 참여단체가 선정되면

구성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아르코 씬 페스타’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큰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각 행사 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단체 특성을 고려한 홍보 지원 세분화입니다.

아까 아쉬웠던 부분에서 지역 홍보의 실효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만, 수도권 단체 대상 서울 마로니에나 대학로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기획 기능도 강화하되 지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지원해 줄지를 마련해 주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유관기관, 문화재단이나 지자체 쪽에 저희 예술위원회가 직접 다리를 놔서 지역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붙임자료 첫 번째는 ‘아르코 씬 페스타’에 참여했던 선정단체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2는 총괄PM에 대한 정보와 단체 운영에 대한 정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결과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답변을 함께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0페이지에 보면 개선 방향에서 ‘아르코 씬 페스타’의 정체성 및 방향성 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어텀페스타’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막연하게 단순 홍보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차별성을 둘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나왔다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협의체 외에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들어갔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PM이 설정된 이후부터는 아예 모임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진행된다면 추진위원들이 언제까지 활동을 하고 어떻게 마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마무리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흐지부지 모임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것에 대한 시작과 마무리가 정확하게 공지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을 때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어텀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어텀페스타’는 지원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어텀페스타’라는 바운더리 안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홍보를 하는 방식이고 축제와 작품 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통합으로서 작년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약간 기계적인 업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정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에 최대한 노출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들 간에 시너지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기획 기능을 강화해서 축제와 축제, 시기와 시기, 장르와 장르 간 브리지를 놓을 수 있는 기획 작업이 들어가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협의체에 참여하는 축제 주체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되게 정확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PM을 설정한 이후 위원님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사무국 구성과 연계가 되지 않고 사실은 각자 진행이 되면서 이후에 역할을 저희가 제대로 요청드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한다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쫓겼습니다. 일단 행사를 진행하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서 실무적으로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진행을 한다면 1월에 선정단체들이 다 모이면 PM을 선정해 주셨던 장르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중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텀페스타’ 개막식도 제가 가봤는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말씀처럼 ‘어텀페스타’는 지원받지 않는 단체까지 통합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다면 저희는 적어도 저희 축제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어텀과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 어텀은 너무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별성을 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다음에 참여 기관이라든가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를 해서 운영 방향이나 어떤 틀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운영할 것인가는 그때 논의하실 거잖아요. 그때 집중 논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훈경 위원님이 실무진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논의하셔야 한다고 봐요.

이훈경 위원 : 저희가 내년에는 못 들어가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하고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는데 (후임 위원 인선과 관련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서 실무진들한테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보니까 한 달 보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달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지 알았는데 한번을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끝내서 이것은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주관처를 공모해서 연속성 있게 2026년도까지 간다는 것인지? 이미 최종 주관처 선정을, 전년도에 해서 안정성, 운영성 때문에 연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모 선정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안정성, 연속성 차원에서 공모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단체들에게 다시 재지정해서 하겠다는 의미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괄PM을 재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단체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했을 때도 총괄PM이 가장 일하시기 편한, 협업이 가능한 단체를 지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총괄PM에게 권한을 드렸

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본질은 총괄PM을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니까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입찰 방식이었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작년에도 위원회 의결로 지정을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계약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고 지정으로요.

배은주 위원 : 지정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배은주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니까 통합 경쟁 업체 순위가 '아이디어랩'이 213위(포털사이트 동종업계 순위)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정을 해서 경쟁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를 저는 좀 알고 싶은 거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사실 '아이디어랩'을 정한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총괄 PM을 정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편한 업체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이디어랩'인 것이고요. 저희는 '아이디어랩'과 직접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 : 총괄PM을 누가 지정한 것이죠? 참여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인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아닙니다. 총괄PM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위원회 의결로 작년에 선정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총괄PM이 결정되면 총괄PM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던 겁니다.

장미진 위원 : 7쪽을 보시면 2025년도에 17개 축제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이번에 공모한 단체가 15개라고 나와 있으면서 2026년에 재신청한 단체는 14개로 93%라고 표현된 것이 맞잖아요? 여기에 1개 단체가 빠졌는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 쪽이 빠졌고요. 사실 올해 진행하면서 7월과 8월로 잡았지만, 8월 이후에 하는 축제를 애매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용 쪽 행사 일정이 9월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것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우선 오늘 회의 안건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유형 총괄PM과 운영업체의 결을 하는 건데요. 사전에 공연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것보다 우리가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총괄PM과 ‘아이디어랩’이 행사에 대한 홍보에 방점이 있었는데요. 운영 능력에 대한 기대효과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 부분에 주목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무용 분야는 제가 거의 다 봤고요. 사실 전통 분야까지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과성이 반영되었는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17개에서 무용 분야가 15개로 축소되면서 4개 정도가 빠진 것인데요. 그것은 차후에 공연팀과.... 제가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참관하고 이게 전담심의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평가, 모니터링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개선점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처와 소통의 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 우리가 처음 해 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잘 치러냈다. 다만, 이것도 무용 분야에 해당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세종시에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일환으로 공연된 것에 대해서 공연장 안전문제, 산재보험처리, 출연료 지급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듬을 것인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사실 이것을 전담하는 송승은 PM 등 다들 고생을 하셨고요. 공연팀도 마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올해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오늘 의결이 되면 사전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만나셔서 저는 이게 아비뇽과 에든버러를 표방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축제의 정체성, 차별성, 지속가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문제까지 촘촘하게 다듬어서 가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어제 전담심으로 이루어졌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의·평가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개 단체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합유형으로 아르코 씬 페스타에 들어와서 했는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여한 단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물론 어제 무용 분야 1개 단체의 긍정적인 언급을 가지고 일반화를 해서 ‘아르코 씬 페스타’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언론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요. 중앙 언론에서 지역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많이 홍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관처가 정해지면 여러 가지 개선점.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해당 위원님들과 관련된 조직 위 분들을 모셔서 지난해에 처음 시작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보완해야 할 점은 철저하게

보완해서 더 진일보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올해 ‘아썸페’는 사실 통합유형이라기 보다는 통합홍보쇼. 통합홍보에 국한되었고요. 사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홍보라는 관점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아야 될 게, 그러면 내년에도 통합홍보를 중심으로, 지금 PM이나 ‘아이디어랩’이라는 운영업체도 모두 홍보 쪽에 특화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총괄PM과 주관처가 내년에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고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저희가 관여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축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 축제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도 선정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조직위원회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썸페’라는 것이 결국 글로벌 축제를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꾸며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통합홍보를 위해서 ‘아썸페’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문제는 통합홍보를 넘어서서 참여하는 단체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뭔가? 17개 단체를 통합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오늘 의결하더라도 뭔가 정해놓고 가야지 그냥 작년처럼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축제 브랜드라는 ‘아썸페’의 정체성. 통합축제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로 가려면 뭔가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지난번 실무진 보고를 받고 지난해 평가회를 할 때 PM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의 설문조사 보고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홍보만을 위해서 우리가 썸페스타를 만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아비뇽 축제는 에든버러축제와 같은 글로벌한 축제로 만들어보자.” 그런데 뜻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체나 축제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하나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지난해는 시간도 없었지만 일단 마케팅과 홍보를 공동으로 하는 쪽으로 시작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각 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흔들 수가 없다면 테마라도 하나 정해서 그 테마에서 각 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테마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와 축제 간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축제와 축제 사이를 공연으로 유도해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는 브리지 대상으로 심사도 해서 참여를 시키게 한다든지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포함해서 이것은 앞으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장르 위원님들은 당연히 참여하시고요. 이것은 글로벌한 쪽으로 해외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참여 의사가 있는 일반 위원님들도 적극 참여를 하셔서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에게 추후 뜻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는 말이 많지 않아

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PM을 선임했으면 그분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에서도 나왔듯이 비상임위원은 사업집행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너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정병국 위원장 :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장미진 위원 : 집행이죠.

정병국 위원장 : 아니죠. 설계를 하는 거죠.

장미진 위원 : 의결과 심의 의결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왜냐하면 선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리고, 우리 송시경 사무처장께서 법 조문에 있는 것을 그냥 읽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 할 부분들이거든요. 협의하고 PM이 어떤 방향을, 집행은 PM이 하는 거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의견 개진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구문모 위원 : 저도 우리 위원회가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PM이 집행하고 통합홍보에 대한 효과를 얘기했는데요. 물론 PM이 실행을 하지만 목표설정을 자체 내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콘텐츠로 지향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유사한 지표가 있고요. 그것을 관리하면 그 노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은 다 하나라고 봐요.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무리 없이 접근할 것이냐는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가지는데 다 동의를 해서 지난해에 했던 것이고요. 지난해는 여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홍보와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일단 해 보자. 그래서 참여했던 단체들이 다 긍정적이었고 바라보는 사람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간다.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 설정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실천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오늘 회의자료 10쪽에 보면 개선방향 1번이, 그동안에는 기획 홍보를 1차년도에 했다면 향후 정체성과 방향성을 설정해서 기획역량을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녹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앞으로 어떻

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가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그런 성격으로 참여해서 논의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8일인가 현장 공청회를 하면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주제로 각 장르에서 현장패널들, 위원회 관련 부서 팀장님들이 설명을 했고 각 분야에서 패널로 참여를 해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대한 철학, 정체성 설정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무처에서는 그 자료도 한번 복기를 해 주세요. 좋은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같이 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인데요. 운영예산이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5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아무래도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더 이상 나가면 선정단체들의 예산이 관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경상비는 최대한 낮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5% 정도로 하면서 나머지는 다 광고와 홍보 쪽에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성기숙 위원 : 이것은 운영예산이니까 업체가 정해지고 총괄PD의 인건비나 사례비인데요. 저는 조금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속 가능한 축제로 가려면 사무처에서 공연팀은 고유의 업무가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저희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사업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유형도 하나고요.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축제사업도 계속하니까요. 다만,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식을 다시 했는데요. 5억이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PM을 중심으로 조직위 차원에서 자체기획사업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보이도록 해 보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가 있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작년 5억 중에 많은 부분이 홈페이지 구축이나 기본적인 기반 구축에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것은 줄이고 그 돈을 가급적이면 기획 기능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훈경 위원 : 추가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PM이 작년에 다년으로 저희가 선정한 것이잖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단년으로 했습니다.

이훈경 위원 : 단년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신 거겠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안건번호 제1154호 2026년 아코장편소설창작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안건번호 제1154호 2026년 아코장편소설창작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내 문학계는 문예지 그리고 문학상 중심의 작품 생산구조로 단편소설 청탁을 계속 받게 되는 반면에 해외에서 각광 받는 작품들은 대다수 장편소설입니다. 그래서 장편에 도전하고 싶어도 아래의 한강 작가님 말씀처럼 장편의 완성까지는 짧아도 1년 길게는 7년까지 물리적인 시간 소요가 굉장히 길고 집중적인 집필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공공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서 우수한 장편소설을 지원하고 이러한 작품들이 세계적인 서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2026년에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인 작가 지원사업이 계속 감액되다가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정말 잘 만들어보고자 출판사, 작가, 공모전 심사위원,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까지 다양한 층의 의견을 듣고 5차례 심층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서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술위와 협력 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필 과정에 창작지원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거나 협력 운영하는 집필실 또 온라인 플랫폼인 문학광장을 통한 연재, 프로모션까지 과정부터 후속지원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놉시스의 번역 그리고 발간 후의 샘플 번역 등을 지금 한국문학번역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재와 원고 제출 등 2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2개의 트랙에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지원하고요. 1인당 지원금은 3,000만 원입니다. 지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원금은 3차로 분할 교부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편에 처음 도전하는 작가에게는 지속적인 프로모션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재형으로 진행하고 장편소설 집필 경험이 있는 작가에게는 사업 기간 내에 1차 원고를 제출하게 해서 집중적인 집필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에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현대문학상 작품이 모두 저희 문학웹진에서 배출되면서 출판계가 저희 웹진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1차 원고는 연내에 제출하더라도 공공사업인 만큼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종 발간은 최대 3년까지 기한을 뒤서 제출 후에도 퇴고와 편집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인 만큼 저희가 공고 후에 문학 분야 출판사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청 시에 시놉시스와 초고 200매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접수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해서 준비기간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모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접수는 12월 1일부터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의는 1차 비공개로 시놉과 초고만 평가하고 2차는 지원신청서까지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신규로 진행된다는 내용과 사업에 대한 취지는 9월 정시공모사업 설명 시에 언급도 했고 이미 책자에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점차 들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1월에 공고가 나가는 것이었지만 12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현장에 많이 홍보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지원한다고 해서 참 기쁜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예산 운영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1년으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1년이면 굉장히 기본적인 시간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출판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년 뒤에 영성한 원고를 완고라고 내고 출판은 흐지부지하다가 안 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는 없을까 싶는데요.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단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 1차 완고까지는 올해 안에 접수를 하지만 이후 3년까지 기한을 뒤서 출간이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원신청 시에 출판 계약 여부도 확인하고 출판사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원고로 탈고를 하시면서 출간이 될 때까지 저희도 같이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하고요. 특히 연재를 하고 저희 온라인플랫폼에 공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출판사에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작품들은 출판 계약이 될 확률이 높고 작품들도 여러 독자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 점점 더 좋은 작품으로 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작가가 개별적으로 출간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지원신청 시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장미진 위원 : 출간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는 거죠?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예. 출간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출판사에서 이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계약이 되어 있는 작가들의 집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출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미진 위원 : 최소한 1과 2를 구별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요. 연재를 무조건 다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유형별로 다르게 한다거나 출간에 대해서는 다르게 지원을 한다거나, 출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형을 좀 나눠서 지원 형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요. 주로 등단 10년차 미만은 단편에 도전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신인 작가를 50%까지는 안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작가님들께서 오히려 처음 도전하실 때는 연재 방식이 창작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승미 위원 :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 대상층이 누구일까요? 신인작가, 중견작가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건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유형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장편소설에 도전하시는 작가입니다. 등단 연차와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유형2는 장편소설 출간 경험이 있는 소설가이십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지원조건에서 지원 작가 의무 이행란에 보면 공통란에 “선정작가는 최종 원고 제출 이후 3년 이내에 출판을 완료하고 작품집에 ‘이 도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6년도 아르코장편소설창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발간된 작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서지에 반드시 표기하고, 발간통보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이것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무사항인데요. 그러면 작가가 3,000만 원을 받고 이 기간 안에 출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둔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예. 3년 안에는 발간을 하셔야 합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그 비용은 작가가 부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출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선정되려고 하면 출판사와 계약된 작가들만 응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 작가들 중에서 선정이 되면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요. 여차피 출간하게 되어 있는데 출판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혹여나 작품을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작가가 안 내고 출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이니까요. 우리 회계는 1년 단위로 끝내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년 내에 작품을 내면 완성한 것으로 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작가가 작품을 출간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출간하는 게 의무사항이죠. 3년 내에는 책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부담이 되어야죠. 출판사와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 줬는데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이미 출판사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출판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간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작가로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배은주 위원 : 이해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질문내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학 분야의 비상임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설명하신 아르크장편 소설창작지원 공모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설계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의 독자적 장르뿐만 아니라 창극, 무용, 음악, 연극까지 창작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디만, 발간 시점은 3년 이내로 한다는데요. 저는 이것을 사무처에서 나중에 진행하면서 작가들한테 너무 원고 독촉이나 압박을 하는 것은 완화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공공기금을 지원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무처에서 원고 독촉 등은 좀 유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창작의 영감이 생겨서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방식에 있어서 긴 호흡으로 돌아봐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단년 사업이지만 단년에 회계처리를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글을 쓰고 3년까지 여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도 장편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3년 단위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3년인데 3년 이상을 주게 되면 무책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최소한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심각한 것은 아닌데요. 추진 배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국내 문학계는 단편 소설에 편중되어있는 반면에 글로벌 문학 시장은 장편소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믿기는 하지만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글로벌트렌드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얘기를 해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벨문학상 이후 문학상을 받고 노미네이트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당위성으로 배경을 제시하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미네이트가 잘 안되는 단계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할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있잖아요. 글로벌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결국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정부에서도 문학 지원에 많이 투자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특히 문학 분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분야에 지원했으면 좋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장편 분야의 지원이 전무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정부 의도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설계하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구문모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여기 3,000만 원이 1인당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2,400만 원과 600만 원은 다른 취재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의 근거가 뭔지 설계가 되어 있나요?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저희가 여러 장편 공모전의 시상금을 검토했구요. 장편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재와 완고 발표 시에는 외부 공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고려해서 시상금도 선정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1년 동안 오로지 여기에 몰입할 수 있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문모 위원 : 근거가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3,000만 원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생계비 말고도 2,400만 원에 지원하는 것 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발굴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냥 실무진들이 결정한 건 아니고요. 문학 분야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그래서 5차례나 문학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금액. 현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생활비는 지원돼야 글쓰기에 전념한다는 과정에서 답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근거가 되는 기준 등은 최저생활 생계비가 아마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사실 창작 주체나 대한민국공연예술 공연 분야는 협업하는 안무자가 있지만 이것은 개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장편소설 분야는 아시다시피 문학계 생태계에서 굉장히 취약 분야로 되어 있어서 장편소설창작기반 강화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저는 여기에서 지원을 3,000만 원씩 10명을 하고 결과치가 나중에 한국의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가 나오면 굉장히 성과가 입증되는 건데요. 이것만큼은 저는 전업 작가의 의미가 있어서 아르코에서 창작장편소설지원의 진입을 새롭게 설계해서 했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잘 다듬어서 안착된 지원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도 보완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고민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유형1과 유형2를 같은 비율로 10명씩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장편과 집필 소설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작품이 큰 차이 없이 집중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동일한 수준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는데요.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유형1과 유형2의 인원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수정 의결하면 어떨까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비율로 선정하는 게 목표이기는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것은 그렇게 탄력을 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55호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8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6차 변경(안) 의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변경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일단 수입과 지출을 모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항목을 보시면 크게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이라는 구조로 나뉘어 있는데요.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체육기금, 일반회계처럼 매년 정부 심의를 통해서 문예기금에 전입되는 전입금을 말하고요. 자체수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경륜·경정 수입금처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수입이나 건축물미술작품 대체수입금이나 민간기부금처럼 민간출연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내용은 자체수입 안에 있는 민간출연금 중에서 기부금이 예정보다 더 많이 기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 207억 원으로 예산을 만든 것을 기부금 수입으로 242억 원으로 35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지출에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사업에서 기부금 사업으로 35억 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문예기금의 운용 총액 증가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변경은 안 되고 기재부 협의의 변경 건이라서 오늘 의결을 통해서 의결이 끝나면 기재부에 요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지출 항목에 있는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예산은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만큼을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당초 예측하고 계획했던 연간 총액수가 113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14억을 초과한 127억 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의 경우 기부금과 연계한 사업들도, 그러니까 기부금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세계총회라든가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사업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기부금 수입이 있었어요. K-아트펀딩과 같이 새롭게 모금 상품들을 신설하면서 작년에는 없었던 신규 기부금이 33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로 유치한 기부금 33억 원에 여유분으로 2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총 35억 원 정도를 편성하면 저희가 올해 들어올 수 있는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변경 내역 같은 경우에는 수입·지출 부분에서 예산서상 변경되는 내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4)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타당성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금 변경을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기재부에서 만들어놓은 체크리스트인데요. 그 사유를 검토한 결과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기금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부 사업 총괄표나 자금 수지 총괄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보고드린 변경 사항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보고를 들으신 대로 우리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한 결과 예상보다 후원금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 지출을 맞춰야 하고 기재부의 원칙에 의해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기부금은 사실 아까도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기부했던 메인 소스가 변동될 소지도 있습니다. 35억으로 설정할 만큼 예측이 과연 확실한지? 추가적으로 2억 말고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잘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할 것이잖아요. 협의할 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일단 구조상 협의는 현재 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는 일단 증액.

정병국 위원장 : 돈을 많이 거뒀으니까 좋아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문체부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면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요청하고 승인되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구문모 위원 : 차제에 준비하실 때 소스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유를 위해서 이러한 것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남기시고요. 조금 더 좋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의 용도가 어디냐?”라고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면 좀 안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각 위원 : 우리 예술가치확산소위에서는 이 내용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보니까 신규 기부금이 33억이잖아요. 그런데 삼천리에서 25억으로 대부분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죠?

정병국 위원장 : 조건부 기부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온 것이라서요. 삼천리가 옥스퍼드 대학 내에 있는 한국계 교수들이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센터도 있고 일본센터도 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200억까지 내면서 인도네시아센터까지 구축하는데 한국의 K-컬처가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관심이 많은데 옥스퍼드 대학에 이러한 센터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천리 회장이 “그럼 내가 그것을 기부할게.”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25억을 기부해서 한국 K-컬처 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해외에 후원하는 것은 증여가 돼서 증여세로 40%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말을 마침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 “지정기부금 제도가 있다.”, “우리를 활용하시오.”, “그 대신 옥스퍼드 내에 K-컬처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하고 협의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정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 실무진들이 참 애를 썼는데요. 우리 기관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고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 줘야 하는데 결재를 안 해줘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앞으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결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가 정확하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옥스퍼드 센터를 예술위가 운영하는 것.

정병국 위원장 : 운영에 참여하는 거죠.

김진각 위원 : 관여를 한다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운영은 옥스퍼드 대학이 하지만 거기에 사람을 파견하거나 한국에서 뭘 보내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죠.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K-컬처라고 하는 게, 여기 삼천리가 생각하는 건 순수예술 쪽의 기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토달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천리가 추후에도 계속 후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우리는 우리 영역의 연구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관여하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우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영역의 경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대중 예술 또는 순수예술 영역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센터 연구의 중심이 한국의 대중문화 K-컬처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술위가 계속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닙니다. 대중예술은 우리가 안 합니다. 우리의 영역만 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순수예술 쪽만?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수예술 쪽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설계를 해야 합니다.

김진각 위원 : 이런 연구를 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침 영국에서도 적극성을 띤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국책연구원이 있는데 국책연구원에서 2030년 이후에 영국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부의 부서별로 국장급이 들어가서 연구를 교수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 파트 쪽의 국장 2명과 교수 1명이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지난여름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순수예술 영역도,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이 영국을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영국이 한국과 같이하고 싶어 하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우선, 가치 확산 해당 부서와 위원장님이 큰 성과를 가져오셨는데요. 옥스퍼드 한국학 연구소가 있어서요.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차인표가 소설을 써서 특강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교수들이 있습니다. 옥스퍼드가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 교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여기에 조건부 기부금이라는 것이 기부자와 출연자가 예측 불가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발성이냐, 지속성이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30쪽에 기부금 신규 내역을 적어놨는데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어서 한예종에도 순수예술 쪽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예위까지 연결된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기부처가 우리은행, 국민은행, 삼천리, 아이엠뱅크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삼천리 조건부 기부금이라서 삼천리는 옥스퍼드와 결합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기부처는 어떻게 결합이 되는것인지?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제가 조금 도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문예진흥기금 거래

은행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보면 리베이트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우리가 순수예술을 지원하는데 공식적으로 받아서 쓰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고 어차피 당신들이 ESG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용도로 해서 후원을 해 주시오. 그 사람들도 선뜻 응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미로 쓰고 후원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기숙 위원 : 이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발굴을 하면 발굴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156호 기관 중장기 전략체계 개선(안)입니다.
본 안건도 김성범 기초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35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와 공공영역 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발생했고 적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경영전략소위원회를 통해서 기관 경영전략을 개선해 왔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중장기전략은 미션 아래로 비전과 핵심가치를 핵심 체계라고 하고 그 아래에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전략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번 과업에서는 작년 말에 신규 수립한 비전 임무로 가치 체계는 유지하되 전략 체계를 수정하는 것을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지난 6월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선정할 때부터 올해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중장기전략을 롤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했고요. 이후 전략 체계 변경의 전반적인 Quality Manager을 맡아 주신 김진각 위원님을 비롯해서 경영전략소위원회의 보고와 피드백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아래의 경과는 전체적인 경과를 보여드리는 것이어서 문서로 같음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의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개선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과제인 예술 창작 생태계 확충은 아래에 보시는 전략과제를 포괄하는 전략목표를 예술 창작 생태계 확충으로 변경했는데요. 해당 단어들을 조금씩 수정한 배경은 현재 국정과제에 자유로운 예술 창작 기반 확충이라는 방향을 창작지원의 전략목표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단어를 차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략과제 1번은 현행을 유지하고 전략과제 2번과 3번은 정부의 청년정책 강화와

내년도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저희 기관에서 실제 수행하게 되는 K-아트 청년예술가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예산 증액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제로 신설했구요. 이와 함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일자리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을 포괄하는 과제로 안정적인 예술 현장 일자리 및 역량 개발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과제로 기존의 인적자원 육성 과제를 2개로 분리했습니다.

또 아래에 아르코창작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용어가 모호성이 있고 극장이나 미술관의 명칭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성과 더불어서 아르코의 시설이라는 상징성과 특성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을 반영해서 예술극장·미술관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특성화라는 과제로 새롭게 만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작 선과의 국민 체감 확대 및 대외 확산의 경우에는 향유 성격의 전략과제라는 판단으로 다음 전략목표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전략목표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있었던 창작성과의 국민 체감 확대 및 대외 확산은 창작의 결과를 국민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창작 영역보다는 전략목표 2번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전략목표 2번의 과제로 배치했구요. 그 외에 3가지 전략과제 명칭으로 기존 5번, 6번, 7번은 그대로 살려두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향유자를 발굴하는 것, 취약계층에 대한 향유도 증진하겠다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6번과 7번의 순서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전략목표 3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기존에는 '문화예술의 가치 공감과 지지'였는데요. 그것보다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실제 해당 사업명, 현재 사업명을 반영해서 '문화예술 가치 사회 확산'이라는 전략목표로 새롭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9번의 '문화예술 가치 확산 활동 다각화'는 기존에는 '사업 다각화'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포괄적인, 특히 예술로 바로 분류되기 힘든 문화적 측면에 대한 캠페인성 활동 등을 포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가치 확산 활동 다각화'라고 이름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는 동일하고 '예술자원 축적 및 활용' 같은 경우에도 기록원의 아카이빙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대 국민에게 전달하면서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술기록물 축적 및 활용 확대'라는 워딩으로 조금 수정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향을 조금씩 반영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목표 4번은 기존에는 목표로서 조금 모호한 선진형이라는 단어를 아래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포괄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관 경영 체계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존에는 '예술 정책 선도 및 파트너십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술 정책 선도'는 그대로 두었는데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여러 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 중요성을 저희 스스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예술정책 선도 및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의 3가지 과제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표는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었을 때 우리 기관의 가치체계와 전략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이후에는 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임직원 대상 내재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각 팀의 지표와 연계하고 내년 초에 작성하게 되는 2025년도 경영평가실적보고서에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략 체계를 기초로 작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같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경영전략소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를 하였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지금 그동안 참여를 계속해서 쪽 봤는데요.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미션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미션이 좀 길어서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들어가 있고 너무 기니까 축약해서 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정병국 위원장 : 그동안 많이 논의하셨을 텐데요. 이것을 함축해서 할 수 있으면 함축해서 하면 되겠지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관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의 나아갈 방향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지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2025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5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구문모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코웹진은 개선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산시키고 콘텐츠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데이터관리에 있어서 실무진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웹진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고치고 있다는 것은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큰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후원 주간 아트포레스트가 있고 예술후원인의밤이 잘 실려져 있기는 한데요.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그 전의 자료를 준비한 것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 입에 침을 바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잘 되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썼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숫자로 다 해놨어요. 얼마가 투입되었고 항목이 어떻게 수입이 어떻다는 게 나와서 눈으로 금방 확인 할 수 있게 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실무진이 계산해야 하는 문제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하면 후원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수입금을 많이 모으자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꽤 많은 차이가 나요. 비용을 쓴 것과 후원을 받은 것이요. 예를 들면 6원의 예산을 썼는데 1원의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은 좋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6년이나 10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뭐였느냐 하면, 이 사업의 목표는 예술 가치 행사 내용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향유를 많이 해야 하니까 참여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도달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게 예산을 투입하고 수익금이 같은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하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장기적으로 지표를 아까 “예술적인 가치를 높이는 기획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되면 몇 명의 관객..... 이번 성과는 금액보다는 사실 관객들을 많이 포함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할 때 목표에 맞는 겁니다. 금액 자체는 어떤 한계가 있지만요. 그래서 좋아졌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감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미라 위원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르고 예술후원인의밤에서 경매의 경우 예술가 콜라보 와인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진에서 감안해서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향후 계획에서 ‘기업문화력연구’는 지난번에 중간 보고서를 받았는데 김미라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서 결말을 맺을 때 도움을 주고자 다시 회의해서 맺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질문은 아니고요. 의견을 드리는데요. 웹진을 발간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책자로 나왔어요. 이게 논문을 쓰거나 문화예술 흐름을 보려면 교과서처럼 저희가 봤던 것인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웹진으로 바뀌었는데요. 내용과 형식을 말하자면 여기에는 주로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서 홈페이지, 팝업, 쇼츠, SNS 등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과 형식을 말할 때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라는 것은 여기에 글을 쓰는 필진의 위상과 전문성 그다음에 글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실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서와 제가 소통의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전달해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언제든지 웹진은 그 이전에도 필진을 구성하는데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구했으니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소위에서 지금까지 2명이 웹진에 기고를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각 장르별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처음 와서 구축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르코의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기본 데이터들이 같은 기준으로 같이 올려야 된다. 그것을 계속 주장해서 통합플랫폼을 만드는데 아직 완성을 못 했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과정속에서 이런 웹진이라든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출판물이라든지 웹진까지도 저는 일맥상통하게 통일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문예연감을 우리 아르코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문예연감은 쓸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엔카스를 활용하는 것도 엔카스를 통해서 결과물까지 나오게 되면 그 통계치를 보면 어떤 규모의 어떤 공연물을 올리면 몇 명의 관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예측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또 해외에서는 한국의 예술을 같이 교류하고 싶을 때는 누구하고 할 것인가? 그러면 아르코의 플랫폼에 들어와 보면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되어 있고 그 자체가 기록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계속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본 보고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경영전략소위원회 5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 회의안건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 관련 안건이고 두 번째는 아르코 비전-링크 공모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기조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부연 설명을 할 것은 크게 없어요. 다만,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해 왔고 큰 방향성, 기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경영평가를 반영하고 예술 생태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기조 팀장님과 실질적으로 실무자인 김태희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주셔서 전략 개선(안)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르코 비전-링크 공모전은 사실 사무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위의 사업을 구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공모전 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세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무처의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휴가 같은 것을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좋은

경영전략 실행 제고를 위한 안이 나와서 채택이 되면 승진하는데 가점을 주고 휴가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들으셨죠? 적극적으로 내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장편소설창작지원 6억 원이 작년 아르고 비전-링크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네요. 나중에 보고하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 안건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보고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4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평가 편람이 기관으로 배포가 되는데 2025년도 평가를 위한 평가 편람이 지난 11월 5일에 저희 기관으로 통보가 되었고요. 편람 내용에 기관장 평가를 새로 신설했고 내용으로는 ‘기관장 리더십’, ‘경영성과 협약 이행성과’, ‘기관경영성과’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체결 대상은 올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관장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도 체결 대상에 해당되고요. 본 건을 문체부로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보고하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제출 전에 이메일로 공유하고 이사회에서 보고하라는 안내에 따라서 오늘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 경영성과계획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계획에서는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의 질적 개선과 이와 관련된 정량 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은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예술창작 역량 강화’, ‘생활 속 예술 활성화’,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 활동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창작지원, 향유 지원, 후원사업 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창작 관련된 성과 목표로 현재 작성해서 문체부로 제출한 내용은 ‘현장 중심 창작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예술창작 기반을 강화한다.’라고 설정했고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정성지표로 ‘예술창작 지원제도 개선’, 정량 지표로는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 정부 평가결과’와 ‘국제협력사업 실행 건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는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이에 대한 정성지표로는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선’, 정량 지표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이용률’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의 후원 및 기부 활성화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확대한다.’라는 목표와 함께 정성지표로 ‘문화예술 가치 확산 사업 개선’, 정량 지표로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 확대’를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올해 2025년도의 경영실적평가 수검을 위해서 경영성과관리TF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 초에는 TF를 통해서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뒤에 나오는 경영평가협약서는 문체부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랐고 그 뒤에 있는 경영성과계획서 전문은 말씀드린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내용과 함께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면으로 같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관의 기강을 잡고 기관들의 결과에 대해서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평가하고 기관 전체의 평가는 기관 나름대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기관장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임기가 끝나는데, 필요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다 제출을 하라고 해서 우리 아르코에서 그동안 지향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도 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지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문체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정병국 위원장 : 전 부처가 다 그렇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기관장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례적인 것인데요.

정병국 위원장 : 기관장을 따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 배경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는데요. 46쪽의 협약 기간을 보면,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요.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2026년 1월 9일까지인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재직기간을 다 내라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거죠. 그 이전 것은 평가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을 평가하는데 그때 기관 따로 기관장 따로 평가를 이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네 번째 보고 안건은 2025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감한 국정감사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22일에 개최가 되었고 10월 29일에는 문체부 소속 전체 공공기관들과 함께 종합감사로 수감을 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관련 사항으로는 김재원, 박수현, 배현진, 손술, 임오경,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종합감사에서는 조은희, 임오경 의원님이 저희 기관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자료로 대신 하시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자료는 지난주에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혹시 이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록해 놔야 하는 거라서 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2025년 12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8기 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해산이 되면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임이 올 때까지는 해야 하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8기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잠깐만요. 급하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올해 10월 국감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고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위원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지나가 버렸지만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류재수 본부장님과 김성범 팀장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회에서는 근본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하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보고)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12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40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 종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